

일주문



장애우와 함께하는 수련캠프 개최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정연 스님은 7월 23-26일, 7월 30일-8월 2일 초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마음 자람' 수련캠프를 연다. (055)633-3000



강진 백련사 주지에 취임
여연 스님은 7월 3일 강진 백련사에서 봉행된 주지 취임법회에서 주지로 취임했다.



연화원요양보호사교육원 개강
서울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 6월 30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가천의과학대 총장 취임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은 7월 1일 가천의과학대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재가불자로 살아간다는 것' 강연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는 7월 16일 오후 7시 선우법당에서 '재가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힘겨움과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02)2278-8672

“템플스테이 한국 관광산업 새 모델로 발전”

서울관광대상 수상한 불교문화사업단 중훈 스님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를 지닌 산사(山寺)의 문을 열고 내·외국인에게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이제 세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내국인은 물론 세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템플스테이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알린 공로로 템플스테이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6월 27일 열린 서울관광대상에서 최우수서울여행상품상을 수상했다. 단장 중훈 스님(사진)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템플스테이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시작, 2004년에는 공주 마곡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서울 8개 사찰을 중심으로 전국 87개 사찰에서 성실하게 운영 중이다.

스님은 “이제 템플스테이가 안정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휴식’과

‘여유’다. 도시의 삭막함을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산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템플스테이의 인기 비결”이라 꼽았다.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는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프랑스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9%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광상품인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을 막론해 생활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중앙과 사찰간의 체계 정비 등 숙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템플스테이가 한국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려면 통역 등 세계인을 위한 서비스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는 기본 틀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차별해지는 세계관광 각축전 속에 템플스테이가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되고 참가하는 내외국인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부산 명륜심인당 이전 헌공불사



진각종 명륜심인당(주교 혜명 정사)은 6월 19일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신축 심인당에서 통리원장 회경 정사, 종의회 의장 성초 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명륜심인당은 지상 3층, 지하 3층 건물로 심인당과 부산교구청, 법당실, 자성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 김성우기자

봉은·도선사 등 수월정사 관련 감사패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30일 중국 연길지역에 건립한 수월정사 불사문헌 공로자에게 감사장패와 공로증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총무국장 진화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감사장을, 수곡사 주지 원담 스님과 청주지법감찰청 김진태 감사장은 감사패를, 총무원 사회부장 서영 스님은 공로장을 각각 받았다. 김성우기자

박장욱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관 스님 예방



박장욱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7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불자들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교계에 지원을 부탁했다. 지관 스님은 “최선을 다하면 부처님 가피가 있을 것이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조종섭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불자생도 합동 법회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생도 회합의 기간을 맞아 7월 1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불자생도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설국 스님(대한불교교수도원 원장, 무진 스님(의정부 주지)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국 스님은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땀땀하게 살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승선기자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캄보디아 환자 키아 카브-오킴씨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법안, 이하 실승회)와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가 공동으로 초빙한 캄보디아 환자 키아 카브(12)와 오킴(31)씨가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고 있다. 서울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환우를 6월 30일 만나봤다.

두 환자 중 키아 군은 상태가 무척 좋아졌다. 병문안 간 실승회 스님들과 장난치며 놀 수 있을 정도다. 한국말로 인사도 골잘 한다. 생글생글 웃으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또박 또박 외치는 키아는 병원 내에서도 인기 만점이다. 입국 시 탈장 때문에 그대로 성장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료 판정을 받은 키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키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7월 4일 비행기로 캄보디아 고향마을에 돌아갔다.

문제는 오킴씨다. 오킴씨 뺨에 있던 물혹이 정밀검사 결과 암 덩어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수술을 받았다. 알고 보니 오킴씨는 이미 2000년부터 암에 걸려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미 2004년 본국에서 한 차례 수술도 받은 적이 있었다. 암을 단순한 혹으로 여긴 본국 의료진이 잘못 시술해 신경을 건드려 마비 증세가 나타나났던 것이다.

현재 오킴씨는 회복실에서 수술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 아직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어서다. 경희의료원불자회와 실승회 스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병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일을 터다.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불자회 권혁운 회장은 “하루는 오킴씨가 너무 답답해 보여 병원 인근 사찰 연화사에 데려다줬더니 법당에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더라”면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불자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오킴씨에게 발생한 수술비는 총 2000만 원이다. 키아와 오킴씨를 초청하기 전, 경희의료원불자회가 이들의 수술비와 체류비, 항공비 등 일체를 모금했지만 사실 오킴씨의 수술비만으로도 모금액을 초과해 다시 모금운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경희의료원에서 최 대한 이들에게 배려하고 있지만 병원이 아닌 불자회에서 환자들을 초청한 것이라 병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실승회와 경희의료원은 앞으로 오킴씨가 방사선 수술(총 5주 진행)을 받고 난 후 암이 재발



하지는 않는지 경과까지 모두 지켜 본 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한 번 맺은 인연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킴씨와 한국 불자들의 인연이 훌쩍게 이어지려면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02)725-4277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부처님 약속 지키는 단체로”

‘더 프라미스’ 초대 이사장에 법등 스님

“우리 역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돌려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The Promise:부처님의 약속)’ 창립총회가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을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추대했다.

‘더 프라미스’는 지난해 법등 스님을 비롯한 30인의 사부대중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법등 스님은 ‘더 프라미스’를 통해 “종교와 인종, 지역과 차별 없이 세계 곳곳의 재난과 전쟁 분쟁 이후 지역에서 긴급 구난구조, 의료서비스, 교육기

회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 프라미스’는 현재 티베트 자치구 내 쓰촨 지역 리탕군 총화중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컴퓨터실 등 현대식 교육설비를 갖춘 총화중학교가 완공되면 티베트 도서벽지 교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법등 스님은 “여러분의 원력이 자비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큰 욕심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단체로 나아가길”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대통합종단 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증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증 구비서류

- 본종 입증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 창원총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관음출판사필름